

4년내 정보보호산업 시장 30조 목표 1.1조 투입, 1300억 보안펀드 조성

과기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3년간 연평균 8.5% 성장 전망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 수립 통신·금융 등 분야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에서 시장규모 3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7년까지 13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도 조성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안기업으로 키워 보안을 강화하는 국제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은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올해 3019억달러(약 394조원)로 추산되는 정보보호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주요국은 자국 정보보호산업 수준이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산업 육성에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

령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우리 힘으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고 고성장 중인 글로벌 보안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이번 전략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환되는 보안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근 보안 산업은 '경계보안' 구조에서 '제로트러스트'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단일 접속지점에서 강력한 보안 평가 및 통제를 적용하는 경계보안 대신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 요구 시 네트워킹이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검증하는 시스템인 '제로트러스트'로 체계가 전환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신,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새 모델이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보안내재화를 통해 새로운 보안 시장을 창출한다.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폐쇄회로(CC) TV 반도체칩(SoC)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조속히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문 안면 중심 생체인식 성능평가 분야를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를 견인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동 거점을 오만에서 사우디로 재편하는 베트남 거점 신설도 추진한다.

국내 산업의 생태계 확충 방안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판교, 부울경, 송파 등 지역으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만든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펀드도 조성된다. 민관 합동으로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가 조성돼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생각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주도권을 확장함으로써 사이버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대동 이종순 Product생산개발부(오른쪽)와 포스코 김기수 공정연구소장이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대동-포스코, 특수환경 임무로봇 개발

2025년 제철소 낙광제거 장비 대체

대동이 포스코와 협력해 제철소 내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을 개발한다.

5일 대동에 따르면 포스코 공정연구소와 제철소 내 낙광 수거 및 작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대동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포스코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제철소의 작업 환경에 맞는 임무 로봇을 개발한다. 우선 내년까지 리모콘으로 원격 조정하는 임무 로봇을 만들어 이를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한다. 제철소 낙광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기존 장비를 대체해 대동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임무로봇이 작업장 내 낙광 및 폐기물을 제거하면서 제철소 작업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25년에는 사람의 조작이 최소화된 자율작업 임무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수환경 임무로봇은 골재와 흙, 풀더미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스키드 로더(Skid Steer Loader)를 모티브 삼는다. 여기에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작업기에서 착안해 청소용 로봇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줄 제철용 스노우 블로워, 청소용 블로워 작업기도 추가 개발한다.

대동은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 내에서 작업자의 이동과 물류 운반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모빌리티 솔루션 발굴 사업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비자레알 사장이 4일 창원공장을 방문, 글로벌 전략 모델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차질 없는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관리 경영 통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모습.

비자레알 사장, GM창원공장 방문 '현장경영'

트랙스 크로스오버 성공적 출시 축하 "차질 없는 생산으로 수요 대응해야"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이 현장 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5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비자레알 사장은 지난 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GM 창원공장을 방문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성공적인 출시를 축하하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3일 부평공장과 30일 보령공장 방문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비자레알 사장은 GM의 모든 제조 사업장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창원공장은 현재 글로벌 전략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고 있

는 GM의 핵심 공장 중 하나다. GM은 글로벌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생산을 위해 2021년 창원공장 내 신도장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기존 창원공장에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기술 확보했다.

신도장공장은 8만 평방미터 면적의 3층 규모로 시간당 60대의 차량 도장 작업이 가능하며, 주요 공정의 전자동화와 환경친화적인 설비 구축 등 최상의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GM의 최첨단 설비 기술이 투입됐다. 또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가 진행된 창원공장 내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 역시 최신식 생산 공장으로 리모델링하며 글로벌 시장의 높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날 창원공장을 방문한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웨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글로벌 시장 선전에 대해 임직원들의 공헌을 치하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조립 품질 관리와 높은 생산성 유지를 강조했다.

비자레알 사장은 "웨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GM의 가장 중요한 전략 차종 중 하나이며, 성공적인 출시와 폭발적인 인기가 있기까지 수고해준 임직원들의 노력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질 없는 생산과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통해 폭발적인 글로벌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창원공장과 한국지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금 700만원 선지급

중기부, 신속 일상복귀 일환 수립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피해 시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

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재난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 웰스, 신제품 '울스텐' 비데 2종

위생·절전·방수 '3박자'

교원 웰스(Wells)가 위생과 절전, 방수 기능을 모두 갖춘 '웰스 비데 울스텐 트윈', '웰스 비데 울스텐' 신제품을 출시했다. '웰스 비데 울스텐 트윈'은 물과 몸이 닿는 모든 곳에 항균 소재를 적용해 위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눈

에 보이지 않는 물탱크와 노즐 실린더에 세균 박멸효과가 탁월한 '항균동'을 사용했다.

'웰스 비데 울스텐'은 노즐·수압·건조5단계 미세조절과 전후 무브 세척, 어린이 세척 등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모델이다. /김승호 기자